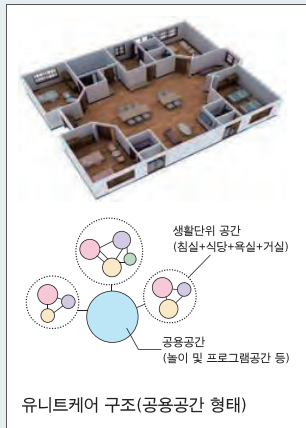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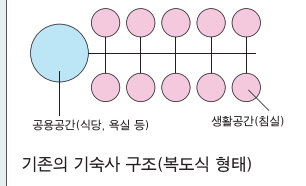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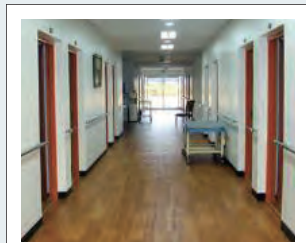


# 고령자 돌봄, 주거환경 개선을 고민하는 도시들

서울시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24.4.26.

부산시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2024.5.2.



###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형태와

###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비교

출처: 서울시, (2024). '집 같은'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2030년까지 170개 조성. 4월 26일 보도자료.

## 서울시, 유니트케어 구조 도입한 '안심돌봄가정' 조성 지원

서울시가 복도식의 기숙사 구조가 아닌 2~3인실 위주의 방과 거실을 갖춘 집 형태의 노인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을 시내 곳곳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인복지법」에서 5~9인 정원의 소규모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일컫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서울시에서 마련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해 '유니트케어(Unit Care)' 구조를 도입한 시설이다.

유니트케어 구조는 인간 중심 돌봄을 위한 시설환경 구조로, 기존 복도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3~4인 위주의 생활실을 탈피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실을 비롯한 2~3인실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거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개인영역과 공용공간을 구분하고 집과 같은 공간구성으로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또한 1인당 면적도 법적 면적인 20.5제곱미터보다 넓은 25.1제곱미터를 충족하도록 하였다.

안심돌봄가정 사업자로 선정되면 리모델링을 포함한 시설 조성비와 초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안심돌봄가정 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2030년까지 170개소 확충을 목표로 지원 수를 늘려 나갈 방침이다.

## 부산시, 지역사회와 함께

## 고령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부산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취약계층 고령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부산형 해비타트 챌린지'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는 노인가구의 노후화된 주택을 노령층 사용자에 맞춰 생활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구조로 개조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가구당 주택 개조와 노인복지용구 설치 등에 3,000만 원 내외를 지원하게 되며, 고령자의 생활동선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지역 기업·단체 및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상 주택에 대한 전문가 사전 진단부터 고령친화적 개조에 이르기까지, 고령화로 인한 주거 문제를 세밀히 파악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가구이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가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원 대상 접수와 더불어 이번 사업에 참여할 지역 기업·단체와 자원봉사자도 함께 모집하였다.

시는 "많은 어르신이 자신이 오랜 기간 살던 곳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게 나이들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사업에 대한 기대를 밝히기도 하였다.